

# 광주 아파트값 하락세 돌아섰나

###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주 이어 2주 연속 가격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 집값 더 떨어질 것 심리도 남구 하락세 두드러져... 전세도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광주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지표가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견줘 0.01% 하락했다. 지난주(-0.01%) 하락한 데 이어 2주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2월 5일(-0.01%) 하락한 이후 1년여 만이다.

5개 자치구별로는 남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남구는 지난주(-0.02%)에 이어 이번주에도 0.03% 떨어졌다. 남구의 경우 지난달 18일 0.03% 하락한 이후 -

0.01%(25일)→-0.01%(3월 4일)→-0.02%(11일)→-0.03%(18일)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17.77%에 달했다는 점도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매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장, 광주시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아파트(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4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2억9300만원)에 견줘 1억4400만원이나 올랐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150.97㎡의 공시가격도 지난해(4억9300만원)보다 7억3200만원으로 2억3900만원 상승했다.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55.63㎡도 지난해 5억44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

해 8억3200만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다. 제일풍경채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5300만원으로 지난해(3억7200만원)에 비해 48.7%(1억8100만원)이나 올랐다.

수원지구를 포함한 광산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산구도 이번 주 -0.01% 떨어지면서 지난달 18일(-0.01%) 이후 내리 5주째 내림세다. 수원지구 6차 대방노블랜드 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3800만원으로 나타나 지난해(2억4800만원)보다 올랐고 수원 코오롱하늘채 전용 103.71㎡ 공시가격도 지난해(2억8500만원)보다 상승한 4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동구와 서구, 북구는 포함세를 유지했다.

매매 가격 뿐 아니라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기록,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지역 전세가격은 이번 주 0.02% 떨어졌고 광산구와 남구는 입주 물량 증가(지난해 7700가구→올해 1만-18000가구)로 각각 -0.03%씩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거래

도 감소했다.

국민은행이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달광주지역 '매수우위 지수'는 31.8로, 2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29.3) 이후 최저치다.

매수우위지수란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수치가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고 시장 전망도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2066건)도 1년 전(2436건)에 견줘 15.2%나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주택 규제가 강화된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자들 입장에서 대출 규제,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 강화 등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84.88 (+7.78)	↓ 금리(국고채 3년) 1.79 (-0.02)
↓ 코스닥 743.52 (-6.24)	↓ 환율(USD) 1127.70 (-2.70)

## '이달의 기능한국인' 광주·전남 11명

### 엠피닉스 강상도 대표 2월 기능인 2006년부터...전국 144명

수십년 간 기술 개발에 힘써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인 공로로 '기능한국인'에 선정된 광주·전남지역 기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매달 한명씩 우리나라 기술개발에 공헌을 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모두 144명으로 광주·전남에서는 11명이 '기능한국인'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의 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기술인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그만큼 모든 기능한국인들의 스토리는 기술인으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다.

'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엠피닉스 강상도(41) 대표는 마이크로 광학부품 제조 기술인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이크로 렌즈 생산 기술을 개발한 '기술인'이다. 그는 30년 이상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마이크로 렌즈를 해외 43개사에 공급하면서 수출비율이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년 전인 2017년 '10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세일금형 오세일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대표는 프레스 금형 관련 특허 및 ISO 국제인증 등 다수 보유 기술인으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금형의 경우는 인

간의 손끝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제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동화 등으로 대체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30년 넘게 금형기술자로 살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마옥춘(주베베르 대표)도 2017년 '3월의 기능한국인'에 이름을 올렸다. 제빵·제과분야에서 30여년 간 외길 인생을 걸어온 '대한민국 제과기능장'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종합 베이커리 회사로 성장시켰다.

최은모(㈜무진서비스 대표)는 국내 배터리 제조설비 기술을 글로벌 TOP 3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기술력으로 2015년 '10월의 기능한국인'에 뽑혔다.

그는 '100년 기업'을 목표로 '인력이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회사는 사람"이라며 "좋은 기계,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했다.

국내 수(水) 처리 분야에서 50건이 넘는 특허를 갖고 전 품목 특허등록 제품만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현진기업 임용택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의 기능한국인'에 뽑혔다.

그는 "원들에게 월급과 휴가를 가장 많이 주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다"며 다양성에 위치한 회사에서 기술 개발에 전념, 50건이 넘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수(水) 처리 전문기업 대표가 됐다. 이외 박정순(지상정밀 대표·2012년 2월 기능한국인), 윤승(2010년 5월 기능한국인), 윤정록(2010년 4월 기능한국인) 대표 등도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가 기술 발전에 힘쓴 광주·전남 기술인에 이름이 올라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름만 빼고 다 바꾼 신형 쏘나타 본격 판매

이름만 빼고 다 바꾼 8세대 신형 쏘나타가 첫 선을 보이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우선, 외관 디자인의 경우 기존 모델보다 높이는 30mm 낮아지고 휠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늘어나면서 쿠페 스타일로 변신했다. 주간주행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크롬 재질을 보이지만 점등되면 램프로 바뀌는 '히든라이팅 램프'도 날렵한 느낌을 준다.

실내는 스텔스기에서 영감을 받은 날렵한 형상의 센터패시아 에어벤트와 미래 지향적 느낌을 주는 전자식 변속레버(SBW) 등이 눈길을 끈다.

평균 강도가 10% 이상 높고 무게는 동급 평균 대비 55kg 줄인 3세대 플랫폼을 적용, '가벼우면서도 강한' 차체를 구현한 점도 특징이다.

다양한 첨단 기술도 탑재해 이동 수단이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전환할 기틀도 갖췄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 프로필과 디지털 키, 내장형 블랙박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어 '피렐리 P-제로' 등 첨단 고급 사양들이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9에어백과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자식 변속 버튼 등의 사양을 가장 낮은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출활력 촉진 지원 설명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1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 8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활력 촉진단 전남 수출지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하남산단 내 '노동자 세탁소' 들어선다

### 2만5000여명 근로자 근무 광주시 예산 5억 편성 검토

하남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세탁소가 운영된다.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동 복지를 통해 '노사상생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다.

21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하남산단 내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세탁소'를 운영기로 하고 관련 예산(5억2000만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남산단의 경우 자동차 생산 배후단지

로 가전·금형·광통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04개 사업장에서 2만4900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사업장 영세성으로 인해 유해물질, 분진, 중금속에 노출된 작업복을 세탁할 전용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노동자 전용 세탁소를 운영해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할 경우 '노동자 작업복 세탁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세탁소 운영단체를 선정,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인데다, 노사 상생도시와 노동 중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부 증권거래세율 상반기 인하 예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 상반기 이뤄질 것이라고 21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답고 화평하게 운영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